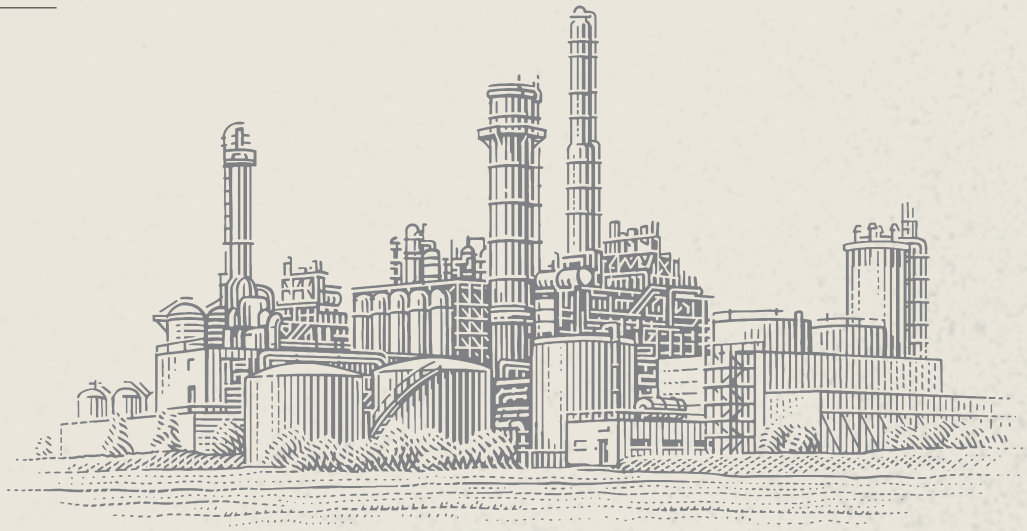
산업보건 역사와 함께한

통권 400호 ___ 「산업보건」

오늘도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노재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산업보건 전문지로서의 첫발을 내딛다

2021년 8월 통권 400호 대한산업보건협회 정기 간행물인 「산업보건」은 1977년 1월 통권 1호 「산업과 보건」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간행물인 「산업과 보건」은 이듬해인 1978년에 발간이 중단되었다. 이어서 협회가 산업보건 직무교육 기관으로서 직무교육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의 필요에 의해 1984년 1월 「산업보건소식」을 발간하였다. 1985년 4월에 「산업보건」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1988년 4월에 정식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2021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업과 보건」은 산업재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산업재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라'(매일경제신문, 1978.6.16.)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1977년 1월에 창간하였다. 계간으로 발행하던 「산업과 보건」은 1978년에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발간을 중단하였다.

産業災害의 時急한對策을

産業安全保健法 制定을 促求

社說

1

2

〈매일경제신문 1978. 6. 16. 2면〉

1983년 5월 협회가 산업보건 직무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9개 의과대학과 함께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1984년 1월에 「산업보건소식」을 발간하였다.

1987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고, 1988년에는 대한산업의학회가 창립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협회도 1988년 4월에 정기간행물 「산업보건」을 발간하였다. 1987년을 기점으로 산업보건이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었고, 다양한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산업보건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식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발간하였다. 발행인은 조규상 대한산업보건협회장이었고, 편집위원은 이광묵 가톨릭대 교수, 염용태 고려대 교수, 이병국 가톨릭대 교수, 노재훈 연세대 교수였다. 1989년부터 순천향대로 이직한 이병국 교수를 대신해 박정일 가톨릭대 교수, 해외 연수 중인 노재훈 교수를 대신해 신동천 연세대 교수, 염용태 교수를 대신해 김해준 고려대 교수, 이용호 교수, 홍윤철 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까지 노재훈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욱 가톨릭대 교수, 정문희 한양대 교수, 송재철 한양대 교수, 구정완 가톨릭대 교수, 강성규 가천대 교수, 김준연 교수, 박동욱 방송통신대 교수, 김현숙 신흥대 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20년 3월부터 구정완 가톨릭대 교수가 편집

1987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고,
1988년에는 대한산업의학회가 창립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협회도 1988년 4월에
정기간행물 「산업보건」을 발간하였다.

1987년을 기점으로 산업보건이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었고,

다양한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산업보건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식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발간하였다.

위원장, 김동일 박사, 하명화 박사, 백희정 적십자간호대 교수, 정지연 용인대 교수, 조기홍 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이 편집위원을 맡아 2021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업보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다

「산업과 보건」 창간호(1977~1978년)에서 최영태 초대회장은 '오늘도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창간특집으로 한국의 산업보건을 다루었으며 한국산업보건의 목표(조규상), 한국산업보건의 실태(이승한), 한국산업보건의 전망(최영태) 등이 실렸다.

〈제1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 사진〉

1984년 1월 「산업보건소식」이 발간되었다. 산업보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발간 이유였다. 1984년에는 산업보건 관련 연구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학술지가 아닌 계몽지 성격으로 산업보건의 근본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직업병이란?(윤임중), 사업장에 있어서 일과 인간공학(이태준), 산업위생이란 무엇인가?(이광묵) 등의 기고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1984년은 제1회 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개최된 해로 학술집담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창간호부터 해외 학회 참관기를 지속적으로 싣고 있었다. 1987년 5월호부터 편집실은 직업병 검진을 위한 검사방법의 실제, 성인병 관리, 여성근로자의 건강 등과 1984년부터 협회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논문들을 본격적으로 게재하였다. 이 해에는 휴게실 코너를 마련, 일반 회원들의 글, 시, 수필, 꽁트를 수록하였다. 1988년과 1989년은 13명의 교수들이 참여해 진단, 제도, 관리의 문제를 논의한 '직업병, 무엇이 문제인가?'를 비롯해 진폐건강진단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작업환경측정,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직업병관리 대책회의, 근로자 건강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1984년 1월 「산업보건소식」이 발간되었다. 산업보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발간 이유였다. 1984년에는 산업보건 관련 연구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학술지가 아닌 계몽지 성격으로 산업보건의 근본 문제를 다루었다.

1990년대 초에는 이광묵 교수의 산업보건의 발자취가 연재되었다. 이 연재는 젊은 시절부터 일선에서 실무를 맡아온 이광묵 교수의 기억에 의존한 기술로 산업보건 역사의 흐름을 살피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직업병의 역학적 연구방법, 특수유해요인 측정법, 화학물질의 독성, 산업보건편람 등 보다 심층적인 산업보건 연구방법을 다루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협회 창립 30주년인 1993년에는 산업보건정책을 위한 건의문, 산업보건사업의 혁신을 위한 우리의 다짐 등과 12월 국제학술회의에서의 건의문 채택 등 변화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윤임중 회장의 수필인 윤선생 이야기와 협회 산업보건연구소의 분석기법, 기획홍보부의 KIHA 경영혁신 시리즈가 실리는 등 협회 임직원들의 참여가 많아졌다. 산업보건 편집실에서는 직장 자가점검 매뉴얼, 운동과 건강, 건강이상 Q&A 등을 번역하여 연재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과의 활발한 기술교류로 인해 일본의 종합건강증진계획 소개, 일본의 산업보건 연재, 해외의 산업의 제도 등 해외 산업보건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보건 정보 등도 수록하였다. 특히 1996년부터는 핫이슈 란을 마련하여 원진레이온과 이황화탄소 중독, 전자파, VDT작업과 암 등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산업보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보건」에 게재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요 독자층인 보건관리자에게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관리대행사례, 직업별 유해성 자료목록, 응급처치 가이드, 직장에서의 레포츠 등을 수록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협회직원 가족사진을 표지에 싣고 표지 이야기를 통해 표지에 등장한 가족들의 친근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2005년과 2006년 표지에는 협회 직원이 근로자를 만나는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201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제언, 기고 등과 함께 직업과 건강, 운동과 건강, 정신건강, 위험성평가제도 등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보건 분야를 다루었다. 석면에 관한 문제와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를 다루었으며 환경과 건강, 담배연기 없는 사업장 정책가이드, 소음과 건강 등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021년에는 협회 직원을 사내기자로 임명해 협회 내 소식과 활동을 살펴보기, 같이보기, 소식보기로 전하고 사보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월간 『산업보건』 표지

현재 월 평균 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 「산업보건」의 주 독자층은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로서 전체 발송대상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보건」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 8월 현재, 「산업보건」은 통권 400호를 발간하였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